

등불,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29면에서 계속

렇게 형성시켰으니, 아! 주인공만이 나를 낮게 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은 켜져 있는 것이고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잘나잘나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듣는 거나 만납니까? 뭐가 고정됨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空)이 즉 색(色)이요 색(色)이 즉 공(空)이니라. 과거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잘 쓰면 스스로를 잘 이끌어 가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 너희가 너희를 구덩이에다가 넣는 격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지각입니다. 과거의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것처럼 빛 보증을 선다고 도장을 띠어 찍어 줬더니 오늘 집안이 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잘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살아나는 데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구성된 일심에서 나오는 활용은 여러분의 생활과 합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4월 8일에 인등을 달러 다니다 부적을 쓴다 이라는 것이 다 허황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를 다니는 거고, 형편에 맞는 날을 잡아 그냥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력 신앙이 아니라 내 주인공에 의한 자력 신앙으로써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잘나잘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생명력이 뚜렷하게 있는 나, 영원한 나에게 자력 신앙으로써 ‘아,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지.’ 이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이바람 저바람에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해도 흔들리니 자신을 어디다 뺄고 다니며 어디를 믿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부터 알고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봅니다. 왜? 예수도 “나는 나로되 너는 너니라. 너는 너로되 나는 나니라.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임제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

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주장자를 뺏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무슨 소리 줄 아십니까? 사람이 중심이 없고 지각이 없어서 촛불을 켜지 못한다면 항상 깜깜한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암흑이라면 사는 것도 암흑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 암흑이지요. 여러분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과 즐거운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되며 몇 초나 됩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을은 다가오는 겁니다. 내 몸뚱이는 나뭇잎과 같아서 낙엽

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님들이 각각 제자를 따로 두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분란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월초파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놓은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4월 8일에 나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월이라. 이것은 동서남북이 다 밝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월! 사월이 아닙니까! 팔월은 바로 무의 사무(四無), 유(四有)가 합쳐져 팔월입니다. 그러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이 한데 합쳐져 일심으로써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마음을 잘 쓰면 모습을 바꾸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잘생기게 그림을 그려서 나오고, 여러분이 한생각 잘못하면 업식을 잔뜩 짊어지고 나와 가지고는 그냥 뱅이 들고 속이 상해서 복장을 찢고 자식들이 말쑥만 피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사는 것도 업식이 한데 모여서 끼리끼리 같이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 보십시오. 배는 배대로 놓고 생선은 생선대로 놓습니다. 생선도 갈치는 갈치대로 놓고 계는 계대로 놔둡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한 식구로 만나는 것도 똑같이 인연에 따라 바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금방에 냄바 갈 일 없고 냄바전에 금 갈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진 자동적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터 뒤범벅을 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에 금하고 무쇠를 뒤범벅으로 섞어 놓는 거 보셨습니까? 과일 가게에서도 이 과일 저 과일 한데 합쳐서 뒤범벅을 만들어 놓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차원대로, 인연 따라서 업식 따라서 한 식구로 만나서 서로 부딪치고 “너 때문에 내가 복장을 찢고...” 이렇게 울고불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더 많고 속상해 하는 시간이 더 많고 아픈 시간이 더 많지요. 즐거운 시간이야 눈곱만치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이를 사찰에 한 번씩 그저 조금씩 즐거움이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거를 바라고 발목을 붙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다가, 아니 종교까지도 그렇게 괴로워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삼재 걸리고 부적 걸리고, 이사 가는 데 무슨 손 걸리고, 그러고도 또 칠성이니 용왕이니 산신이니 하고 따르따르 단단 말합니다. 허허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는 것을, 또는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삼심(三心)을 일심으로 통글리세요. 또 석존이니 지장이니 산신이니 칠성이니 독성이니 용왕이니 지신이니 조왕이니 이런 걸 따르따르 두지 마

세요. ‘주인공!’ 하면 벌써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던 말입니다. 내 조상까지도 들어 있구나 까지도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력 신앙으로써,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와 들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모두 주인공에 넣은 마음을 통글러 가지고 일 배를 올릴 때, 그 공덕은 말도 못해요. ‘백팔 번을 절을 한들 어디 일 배만 하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눈은 천지 어디고 비취 보지 않는 데가 없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그 평발은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모든 부

이 하면서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디딘 데가 없고 아니 굴리는 데가 없고 아니 비취 보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통 친 막대기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건 왜?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서 그 도리를 다 깨달아서서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다, 칠성에게 빌면 칠성이 돼 주시고 산신에게 빌면 산신이 돼 주시고 지장에게 빌면 지장이 돼 주시고 용왕에게 빌면 용왕이 돼 주십니다. 그게 한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백역화신이니라. 천백역화신이 아니 닿는 데가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게 한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습 있는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지만 모습 없는 무체(無體)는, 무심 무체는 한계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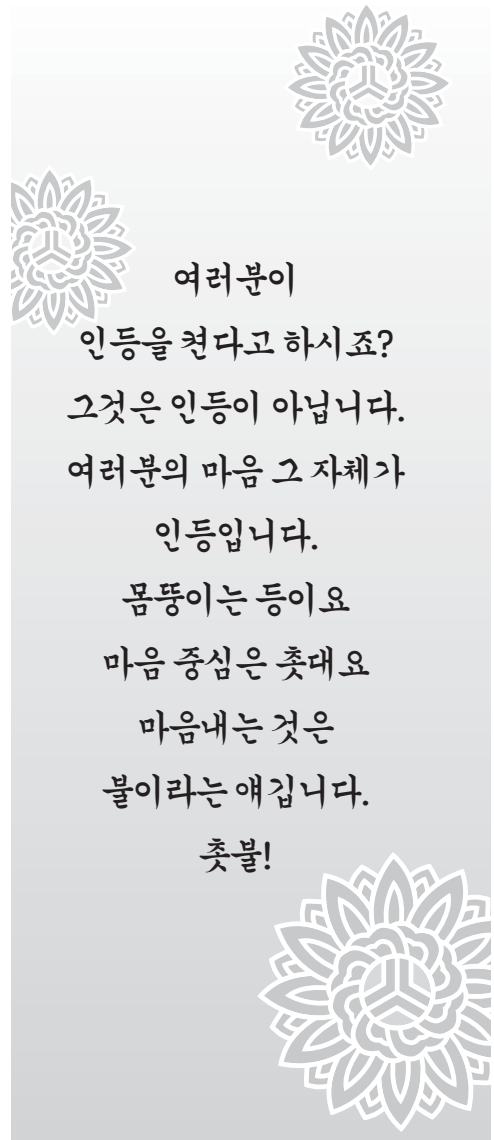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심이음신으로 항상 들고 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삼심이음신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세상, 산 세상, 미래 세상이 다 가지고 계시면서 남나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을 켜더라도 등이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5천 원 낸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켜도, 자기가 1억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가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더하고 덜하고’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보시했네 적게 보시했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심 무행으로 그대로 행을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몇 곱절의 대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켜 때도 항상 ‘주인공만이 이렇게 밝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우리는 부처님 나오신 그 뜻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부모 제사 지내고 생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불을 켜 놓고 예를 다하고 정성을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조상과 부처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왜 따로가 아니라? 이 우주 삼천大千세계의 모든 사생의 무리를 다 항복받고 깨달아서 다 아시고, 그 업식을 여러분의 모든 업식과 더불어 자기가 짊어진 채, 짊어진 것도 없고 안 짊어진 것도 없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현실에도 그렇게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니까 같이 계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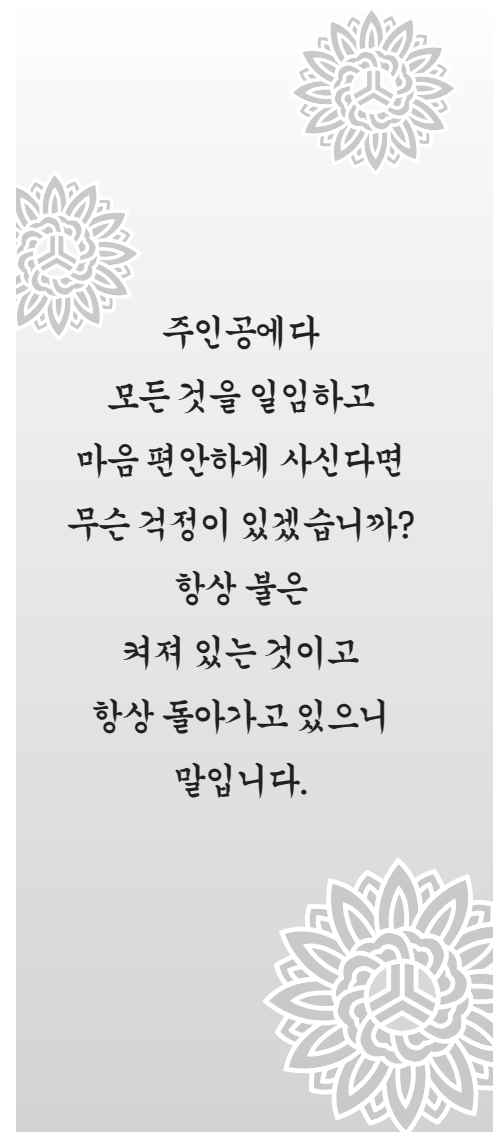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 위 본문은 1989년 4월 23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몸 붓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뚜렷하고 당당하게 그냥 나갈 것이지 어찌자고... 종이 한 쪽에 글씨 써서 붙인다고 여러분 가정의 의 함해지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만 있다면 사월초파일일 얼마나 좋은 봄날이요 기쁜 날인지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한 번을 정해 놓은 것도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열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두셨어요 싸우지 않고 화합한 것은 전부 부처님이라는 한 스승의 제자가 됐



처님은 위대하지도 않고 위대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나를 표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에 대한 이치를 약간이라도 언급하겠습니까. 예전에 ‘부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통 친 막대기니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사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풍간에 작대기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다가 밑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통 친 막대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서는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아픔을 같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민·한흥·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 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고,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환)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블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치음서림/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타라도서 등 전라리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공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시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시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공물할 수 있습니다.

“책” 공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글건히 지키면 약이 몸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선의 명품 향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회용 알갱이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지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죽동 54번지 www.msly.co.kr